

# “MB, 특활비 주범”... 김백준 구속 기소

### 4억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검찰, 김백준 방조-이명박 주범 판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핵심 측근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두 번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5월경 청와대 인근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특활비 전달은 김주성 전 국정원기조실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예산관이 청와대 부근에서 1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김 전 기획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국정원 돈 전달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자제해야한다”는 취지로 만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기획관은 또 2010년 7~8월경에도 부하직원을 시켜 청와대 부근에서 국정원



석방된 이재용  
형소실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특활비 1억원이 든 쇼핑백 2개, 총 2억원 건네받았다. 이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받은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조사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 수수한 것”이라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 특활비를 주고받은 복수의 청와대-국정원 직원들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국정

원 특활비 수수 관련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판단했다. 원세훈, 김성호 전 국정원장들은 뇌물공여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같은 부분을 명시하고 이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도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면서 주범을 명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요 사건 수사 결과를 내세우면서 전직 대통령을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공소장에 적시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뉴스1



## 장명식의 '집념' 출판기념회 성황

전북도의회 장명식 도의원(고청2)은 지난 3일 오후 2시 고창군 동리 국악당에서 장명식의 '집념'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많은 정계, 교육계 인사와 군민 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하영상에서 “(장명식의 집념)에는 자신의 꿈을 향해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업가에서 주목받는 지방 정치인으로 성장한 여정이 녹아 있다”며 “도의회로서 실용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 해왔다.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고창 발전을 위해 더 큰 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가장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딱 한명 꼽으려면 바로 '장명식 의원 일 것'이라며 “도의회로서 얻은 경험과 식견을 기반으로 향후 고창발전에 기대된다. 고창 군민들도 장 의원을 통해 희망이 현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은 직접 축전을 통해 격려말씀을 전했으며,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이남호 전북대 총장도 축하 영상을 통해 “장명식 의원의 식견과 지역현안에 대한 추진력이 높이 평가된다며 장 의원님이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이 잘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출신 백재현, 안규백 국회의원과 전혜숙 국회의원도 축하영상을 보내와 장명식위원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저자 인사말에서 장명식 의원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경위와 과정을 기록했다. 고창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내용을 담은 만큼 고창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 선거방송토론위 TV토론 아카데미 3월6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MBC

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임후보예정자의 토론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3월 6일 광주MBC 스튜디오에서 'TV토론 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강좌는 △선거방송토론의 이해 △이미지 메이킹 △카메라 적응 훈련 및 스튜디오를 활용한 TV토론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TV토론 체험은 실습, 아나운서 출신 전문방송인의 1:1 맞춤형 지도, 다양한 토론 진행방식 직접 체험 등을 통해 실제적인 토론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참가신청은 2월 12일까지 전북, 광주, 전남, 제주지역 임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총 50명을 받는데 자세한 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jbnec.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 “한반도는 ‘코피 타임’ 아닌 ‘커피 타임’ 필요”

### 김광수 의원 대정부질문... “평창올림픽에 북미 대화테이블 마련돼야”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5일 실시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명 ‘코피 전략’과 관련해 “미·북 자존심 싸움에 우리가 생코피 터질 지경”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코피 타임’이 아닌 ‘커피(coffee) 타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며 “평창올림픽에 펜스 미 부통령, 김영남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기로 예정된 만큼 이곳에 북미 대화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대정부질문에서 ‘평화, 민생, 개혁, 청년’ 문제에 집중한 김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평화란 곧 민생”이라며 “자유왕래, 개성공단, 평화공존은 미래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북핵 사용시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현 정부의 국방부장관으로는 부적격으로 그 동안 청와대에서 2번 경고를 받았는데 이젠 ‘삼진 아웃’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용기있는 행동이 사회대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직접 매일 받고도 사실상 사건을 방치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성폭력 폭로자에게 ‘정신병원 가라’는 조사단장에게 진상조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4일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외압 파문과 관련하여 “검찰 생판 상황으로 ‘기득권으로 엮인 법무부 자체에서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

문”이라며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특검과 공수처 설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가상 화폐에 있어 정부가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질타하였고 “더스 실소유주, 블랙리스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수당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동수당이 여야 합의로 선별적 지급방식으로 도입된다”며 “당의 간사로서 선별적 지급안을 발의했지만, 선별비용이 1천억원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복지문제 보편적 복지가 맞다는 것이 평소 철학과 소신”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여야를 설득해 제대로 된 제도로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 양성빈,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대책 시급”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5일 열린 2018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을 2년 앞둔 현 시점에서 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55.77km<sup>2</sup> 중 단 1.84km<sup>2</sup>밖에 해소하지 못했다. 나머지 53.93km<sup>2</sup>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해서 주민의 사유재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72.12km<sup>2</sup>로 계획이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7조 1,900억원에 달한다. 일몰제 대상인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44.53km<sup>2</sup>, 3,37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약 5조 5,600억원이다.

양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은 국토 지방도 미 불용지와 유사한 상황으로 땅주인이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적극적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여는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교육 회복은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